

# 10경기 12골 역대급 페이스 주니오, '유효슈팅' 속 답 있다

42개 최다슈팅 시도 중 유효슈팅 31개...적중 확률 높아져

착실한 골 기록에 '골무원(골+공무원)' 수식어 붙어

지난 2017년 대구FC의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선을 보인 주니오(34)는 2018년 울산현대로 이적하면서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했다.

든든한 동료들을 만난 주니오는 그해 32경기에 나서 무려 22골을 터뜨렸다. 득점왕이 가능한 수치였으나 주니오의 2018년 득점랭킹은 3위였다. 말걸(당시 경남)이라는 괴물이 26골을 넣었고 제리치(당시 강원)도 24골이나 넣은 탓이다.

지난해에도 주니오는 19골을 넣었다. 하지만 수원삼성의 타가트가 20골을 기록하면서 또 최다득점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했다. 득점왕 재도전에 나서는 2020년은 그 한을 풀 수 있을 기세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페이스는 '역대급'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다.

주니오는 지난 4일 오후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10라운드 홈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4-1 대승을 견인했다. 올 시즌 첫 번째 헤트트릭의 주인공이 된 주니오는 시즌 득점을 12골로 크게 늘렸다. 2위 그룹 세징야(대구FC)와 일류첸코(포항)가 작성한 7골보다 5골이나 더 많다.

10경기를 치르면서 주니오가 무득점이었던 경기는 지난 5월30일 광주전과 지난 달 28일 전북과의 경기 단 2개뿐이다. 나머지 8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쏘아 올렸으니 꾸준함에서도 으뜸이고 인천전 헤트트릭 포함, 멀티골 경기도 3번 나왔으니 물아치기도 능하다는 의미다. 오른발, 왼발,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상대에게는 부담이다.

주니오라는 공격수의 가장 큰 매력은 '유효슈팅'에 있다.

주니오는 10라운드까지 소화한 '하나원큐 K리그1 2020' 현재 득점 20골에 올라

있는 선수들을 통틀어 가장 많은 슈팅을 날렸다.

모두 42번 시도했는데, 골 욕심 많기로 유명한 세징야(35번)와 일류첸코(포항/26번)보다도 적잖이 앞선다. 도전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유효슈팅'.

주니오는 42개의 슈팅 중 무려 31개의 슈팅을 유효슈팅으로 남겼다.

75% 정도는 상대 골문 안으로 향한다는 것이니 대단한 정확도다. 일단 골문 안으로 공을 보내니 적중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주니오다.

득점과 관련한 K리그의 거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동국은 과거 골을 잘 넣는 법은 무엇이나는 물음에 "골키퍼를 보고 골키퍼를 향해 슈팅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그는 "잘 맞으면 골키퍼한테 가는 것이고 잘못 맞으면 골키퍼를 피해서 들어갈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효슈팅이 골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이다.

이동국은 "후배들은 너무 정확하게, 구석구석으로 치러한다. 하지만 완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전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번번이 골문 밖으



로 슈팅이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일단은 골키퍼를 향해 차는 게 중요하다. 골키퍼가 잘 막으면 막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차야 누가 실수하든 들어갈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지금 주니오가 그렇다. 하도 착실하게 골을 기록해 '골무원(골+공무원)'이라는 수식어를 지니고 있는

주니오의 득점포의 전제는 일단 '유효슈팅'이다. 골키퍼를 피했다고 해도 공의 궤적이 골문 밖으로 향하면 절대 골이 될 수 없다. 힘을 가득 실어 때려도 결실이 많지 않은 젊은 공격수들이 '왜 난 잘 안 될까' 고민된다면, 떠올려 봐야 할 포인트다.

뉴스 1

## 장성 문향고 조정팀, 시즌 첫 대회부터 금빛 물살...종합 준우승

금2개 포함 총 4개 메달 획득...예산여고 이어 2위



종합 준우승에 오른 문향고 조정팀 왼쪽부터 김미수, 김보빈, 김하경

장성 문향고(교장 고광진) 조정팀이 올 시즌 첫 대회부터 금빛 물살을 가르며 여고부 종합 준우승에 올랐다.

문향고등학교 조정팀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화천 화천호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하며 종합점수 44점으로, 46점을 획득한 예산여고에 이어 여고부 종합 2위에 올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올시즌 뒤늦은 첫 대회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문향고는 김미수(2년), 김하경, 김보빈(이상 3년)이 출전했다.

가장 먼저 경량급 더블스컬에 김보빈과 김미수가 호흡을 맞춘 문향고는 8:02.0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김미수가 출전한 경량급 싱글스컬에서 8:12.62로 가장 먼저 골인하며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향고의 금빛 물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싱글스컬에 출전한 김하경이 8:00.3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한 문향고는 더블스컬에서 김보빈과 김하경이 동메달을 합작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전라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종합 준우승을 이룩한 문향고 조정팀에 박수를 보낸다"며 "최근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훈련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女 축구대표팀 멀티플레이어 조소현, 웨스트햄과 2년 재계약

"1군의 핵심스타들 재계약"

여자축구대표팀의 멀티플레이어 조소현(32)이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웨스트햄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워민 구단은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소현을 비롯한 5명의 선수들과 재계약했다고 알렸다.

구단 측은 "1군의 핵심스타들이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했다"면서 "주장 길리 플래히티, 공격수 엘리샤 레만, 한국인 미드필더 조소현, 캐나다 공격수 아드리아나 레온과 2022년까지 2년 재계약했다. 프랑스의 캔자 달리는 1년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노르웨이의 아발드스네스에 입단하면서 유럽 생활을 시작한 조소현은 1년 후 웨스트햄과 계약하면서 축구중가로 발을 내딛었다.

이적과 동시에 조소현은 2018-2019시즌 웨스트햄의 FA컵 준우승에 일조하는 등 주전으로 빠르게 뿌리 내렸고 코로나19 사태로 2019-20시즌이 조기 종료된 상황에서 구단의 재계약 제안을 받는 등 성공적인 영국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적과 동시에 조소현은 2018-2019시즌 웨스트햄의 FA컵 준우승에 일조하는 등 주전으로 빠르게 뿌리 내렸고 코로나19 사태로 2019-20시즌이 조기 종료된 상황에서 구단의 재계약 제안을 받는 등 성공적인 영국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 NFL 마흐스, 10년 5억300만달러 계약...북미 스포츠 최고액



패트릭 마흐스가 지난해 마이애미에서 열린 슈퍼볼 챔피언결정전 샌프란시스코 포리아이너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뒤 환호하고 있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쿼터백 패트릭 마흐스(25)가 북미 스포츠 역대 최고액인 5억달러(약

59억9천900만달러)를 돌파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ESPN은 7일(한국시간) '슈퍼볼 MVP 쿼터백 마흐스가 오는 2031년

까지 10년 간 5억300만달러(약 6005억 원)에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장액은 4억7700만달러(약 5690억 원)로, 계약에는 10년 간 트레이드 거부권도 포함됐다. 아울러 캔자스시티가 보장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옵트아웃은 잔여 연봉을 포기하기 FA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번 계약은 북미 4대 프로스포츠(MLB, NBA, NFL, NHL) 역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까지는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슈퍼스타 마이크 트라웃이 2019년 3월 12년 간 4억2650만 달러에 계약한 것이 최고액이었다.

마흐스는 사상 처음으로 5억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액을 받는 사나이가 됐다.

마흐스는 NFL 최고의 쿼터백으로 꼽힌다. 지난해 슈퍼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포리아이너스를 꺾고 캔자스시티가 반세기 만에 우승을 하는데 일등공신이 됐다.

## 스포츠로 '4(four)메카' 서막 여는 장흥군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연 6만5000명 방문...경제 파급 연 52억원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부지

장흥군이 올해 스포츠, 의향, 안전,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4(four)메카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많은 물, 푸른 숲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자원에 4가지 핵심 동력을 장착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4메카 육성의 첫 번째 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스포츠메카를 추진하게 된 데에는 장흥군의 온화한 기후와, 산·들·강·바다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지역적 장점을 활용해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와 함께 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스포츠 분야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스포츠 선수와 가족, 체육인 교육자 등 많은 수의 유동인구가 지역을 찾게 된다.

올해 2월에는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최종 후보지로 낙점돼 스포츠메카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체육인교육센터는 전국 체육인들의 교육연수와 등·하계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사용되는 시설이다.

장흥군은 2차까지 이어진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넓고 쾌적한 부지, 사계절 온화한 기후, 접근성, 각종 인프라 지원 등 장흥군은 체육인교육센터 입지에 최적을 여건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체육인교육센터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약 37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16만㎡, 건축 규모 2만5천㎡ 규모로 들어선다.

교육시설,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군은 체육인교육센터 운영이 시작되면 연인원 6만 5천명 이상이 장흥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52억 원에 달한다.

장흥군은 스포츠메카 육성을 위해 '스포츠산업단' 조지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단은 체육인교육센터 건립과 지역 스포츠 인프라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장흥군은 4(four)메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역을 방문하는 유동인구의 수도 5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스포츠메카 육성을 첫 단추로 4(four)메카 장흥의 본격적인 추진을 도입할 것"이라며,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여 사람이 찾아오는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류현진 소속팀 토론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음성 선수들만 캐나다행

류현진(33)의 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일부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에 머무르게 됐다.

캐나다 지역 토론토 선은 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터너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있었다."

해당 선수와 접촉했던 선수들까지 포함해 여러 선수가 토론토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 플로리다에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어떤 선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토론토

선은 최대 12명까지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를 연고로 하는 토론토는 최근까지 구단 스프링캠프 훈련지인 터너에 모여 대기했다.

캐나다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 뒤 선수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전세기를 타고 연고지에 입성했다.

토론토 선수단은 훈련장과 연결된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격리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토는 오는 25일 2020시즌 개막전에서 탬파베이 레이스와 격돌한다.

팀의 에이스 류현진과 인천 동산고 후배 최지민(29·탬파베이)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